

SCU e이야기

e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2017 BRAND POWER **B**

DT브랜드파워대상

KOREA INTERACTIVE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DEX
2010
인터넷소통대상

2017 Newsletter / 2016 Winter vol.35

러시아 그네신 국립음악원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이경숙 석좌교수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창의적 발상으로 미래의 가치를 짓다 ‘건축공간디자인학과’

(<http://arch.iscu.ac.kr>)

건축공간디자인학과장 **홍선관** 교수

현) 모란미술관 부관장
하버드대학교 디자인석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
동경대학교 도시공학박사 수료



CONTENTS www.iscu.ac.kr



2016 Winter vol.35

발행일	2017년 3월
발행처	서울사이버대학교
편집주간	이향아 교수
편집위원	구희정, 김영민, 박병석, 임세희, 정상원, 한수미 교수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 944-5255 세일포커스(주) (02) 2275-6894

SCU Focus

- 04 신년교례 예배
- 06 총장 이·취임식
- 07 이은주 신임 총장 인사말
- 08 제9회 한·미 친선 송년 음악회
- 10 군 리더십 심포지엄
- 12 입학설명회
- 13 2017학년도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SCU Today

- 14 커리어코칭센터 면접 역량 강화 특강
- 16 심리·상담학부 '중독상담 워크숍'
- 18 제10회 총동문회 서사인의 밤
- 19 제12회 경영학과 경영인의 밤
- 20 제8회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인의 밤
- 21 신년 문화행사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관람
- 22 제2회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 대회 시상식
- 23 '누군가에겐 특별한 이름, 희망' 공연
- 24 '2016 체험, 상담의 현장 속으로' 프로그램
- 25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와의 공동학술연구사업 추진

SCU People

- 26 해외명사 인터뷰
- 28 재학생 인터뷰
- 29 졸업생 인터뷰
- 30 러시아 그네신 국립음악원 명예박사 학위 수여자
- 31 2016 코리아 베스트 의정 대상 & CREATIVE KOREA 대상 수상자

SCU Story

- 32 주한 미8군 토마스 밴달 사령관 특강
- 33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 특강
- 34 아하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 이명화 센터장 특강
- 35 청소년지도사 면접 가이드 특강
- 36 여러가지문제연구소 김정운 소장 특강
- 37 국제한마루교육연구소 김경옥 대표 특강
- 38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제니스 워셀 교수 특강
- 39 '코칭심리! 나의 미래를 본다' 워크숍
- 40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사업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 41 SCU Teaching 연구위원회 수업 개발 연구
- 42 SCU 칼럼
- 43 업무협약
- 45 SCU News
- 48 교수동정
- 51 소식지 <SCU e이야기> 발송 관련 수신 동의·거부 안내

2017년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신년교례 예비

- 글로벌 사이버대학으로 발전 기원
- 학교 발전에 앞장선 교직원들 '우수교직원 표창' 수여

2017년 새해를 맞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교육이념인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의 뜻을 기리는 신년교례 예비를 진행했다. 자리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발전을 기원하며 2017년 한 해도 글로벌 사이버대학교로의 도약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발전과 교직원들의 행복·안위를 기원하는 신년교례 예비에 참석한 이상균 이사장과 관계자들

희망찬 정유년을 기원하며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희망찬 한 해를 기원하는 신년교례 예비가 1월 2일(월) 본교 A동 차이콥스키홀에서 진행됐다. 신일학원 이사 겸 해방교회 담임목사인 박영국 목사와 신일 중·고등학교 교목실장 박중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번 교례 예비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자리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글로벌 TOP 10 사이버대학교로의 도약을 기원하며, 2017년에도 'SCU Vision 2022'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00년에 설립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해를 거듭하며 눈부

신 발전과 성과를 이뤄왔다. 자체 개발 이러닝 시스템 'SCU WAVE'를 통해 독자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음악학과를 개설해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은 바 있다. 이외에도 'SCU WAVE 봉사단'을 조직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글로벌 사이버대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2017년 역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 교육을 선도하는 리더로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의 면모를 선보일 예정이다.



우수교직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이상균 이사장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교직원의 노고에 감사하며

신년교례 예배에 이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쓴 우수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우수교직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상을 받은 주인공은 심리·상담학부장 김현진 교수, 총무처의 김준호 처장, 학생처의 유성인 계장, 학생서비스센터의 한영애 사원으로 네 명의 수상자에게 수상 소감과 새해 다짐을 들어보았다.

더 큰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심리·상담학부장 김현진 교수

먼저 과분한 상을 주신 학교 관계자 분들과 늘 학교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동료 교직원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연초부터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마음이 기쁜 한편, 제가 과연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상은 그동안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발전에 힘쓴 모든 분들을 대표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처 김준호 처장

연초부터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먼저 초석을 닦아주신 선임 교직원 분들과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 교직원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뜻깊은 상을 주신 학교 관계자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수교직원 표창에 걸맞은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2017년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와 학생의 소통창구 역할에 힘쓰겠습니다

학생처 유성인 계장

승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우수교직원 표창 수상까지, 감사할 일들이 연달아 생겨 기쁨과 책임감이 교차하는 연초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상은 학생들에게 편리한 학습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불철주야 노력해 온 교직원 모두를 대신해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직원 간의 협업을 통해 학교와 학생을 잇는 소통창구의 역할에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서비스센터 한영애 사원

전 교직원 앞에서 우수교직원 표창이라는 큰 상을 수상한 것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신설된 학생서비스센터의 업무를 맡으며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센터장님을 비롯해 함께한 동료 교직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혁신 약속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이·취임식

- 제9대 총장에 사회복지학부 이은주 교수 취임
- 신임 총장으로 'University for All'을 위한 각오 다져



총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이세웅 명예이사장, 이상균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제8대 전임 총장과 제9대 신임 총장의 이·취임식을 2월 24일(금) 본교 A동 국제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취임식에 참석한 이세웅 명예이사장과 이상균 이사장은 글로벌 대학의 비전 실현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 온 허묘연 총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새롭게 학교를 이끌 이은주 신임 총장에게 역대 총장의 비전과 경험을 거울 삼아 글로벌 리더를 선도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총장으로 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먼저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온 허묘연 총장의 노고를 치하하는 이임식이 진행됐다. 이상균 이사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에 교육·콘텐츠 역량 강화와 차세대 정보 인프라 구축, 맞춤형 스마트 교육 등의 발전을 이끈 허묘연 총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감사패와 꽃다발을 건넸다.

이어 2017학년도부터 학교를 이끌어갈 이은주 신임 총장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제9대 총장으로 선임된 이은주 총장은 미국 텍사스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교무처장과 입학처장, 부총장을 역임하며 총장으로서의 역량을 쌓아왔다.

이은주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모두를 위한 대학, ‘University for All’ 실현을 위해 각오를 다지겠다”며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하고, 학부·학과 간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어 통합과 융합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교육혁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은주 총장은 세계대학총장협회(IAUP)에서 유일한 온라인 대학 회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최근에는 집행이사로 선임돼, 3년의 임기 동안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은주 신임 총장 인사말

모두를 위한 대학, 미래를 위한 선택



제9대 이은주 신임 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버대학이며
국가대표 사이버대학입니다.**

2000년에 설립된 우리 대학은 시대를 앞서가는 온라인 대학이라는 혁신적인 발상과 도전으로 탄생한 최초의 사이버대학이며, 대한민국 대표 사이버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이 만들어온 플랫폼과 성인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학사제도는 사이버대학의 표준이 되어왔습니다.

**우리 대학의 으뜸이 되는 자량은
훌륭한 인격, 불굴의 의지와 이웃을 사랑하는
'대단한' 학생들입니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있으며,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라면 금쪽같은 시간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다른 대학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식전달보다는 지식생산을 위한 교육을 강조합니다. 교수-학생 간, 학생-학생 간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지식의 생산,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첨단 플랫폼과 도구를 개발·적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장 밀착형 교육을 통해 직업실무 노하우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현장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실무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실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철저한 학생 중심 학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현대 성인들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최대한 편리하게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원격지원시스템, 원스톱 학생서비스센터, 교수와의 높은 접근성 및 실시간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수한 교수진과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을 자랑하는 사회복지대학원과 상담심리대학원을 통해 석사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국제적인 교류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비롯한 세계적인 명문대학들과 학생단기 프로그램 및 공동 강의 개발을 통해 국제적인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섯째, 학생, 교수의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학생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인재가 되도록 독려합니다. 또한 오페라, 발레, 콘서트, 영화, 연극 등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대학(University For All)'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대학은 온라인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학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수-학생 간의 면대면 수업과 국내외 전문가 초빙 특강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강의실과 갤러리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캠퍼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학생, 졸업생, 예비입학생, 그리고 일반인들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늘 열려 있는 '모두를 위한 대학(University For All)', 우리 대학에 꼭 방문해 주십시오.



강렬하고 신나는 무대로 큰 호응을 얻은 미8군 군악대 공연

음악으로 소통하고 하나 된 순간 제9회 한·미 친선 송년 음악회

-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한·미 동맹관계 발전 모색
- 미8군 군악대의 화려한 퍼포먼스 눈길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정하 명예총장과 주한 미8군 토마스 밴달 사령관

매년 연말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주한 미8군 사령부는 한·미 친선을 도모하고 한국 주둔 미군 장병을 위문하는 ‘한·미 친선 송년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벌써 9회를 맞은 한·미 친선 송년 음악회는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국경의 장벽을 넘어 소통을 이뤄낸 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12월 11일(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9회 한·미 친선 송년 음악회 현장을 찾아갔다.

해마다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해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9회 한·미 친선 송년 음악회가 KOPIS(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서 집계한 클래식·오페라 공연 부문 총동원 관객 수 2위를 차지하며 연말 대표 공연으로 명성을 높였다. 2,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한·미 친선 송년 음악회는 국경을 초월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으로, 미8군 군악대와 프리마돈나 앙상블, 대한민국군가합창단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도밍고 로빈슨 중령의 지휘 아래 시종일관 강렬하고 신나는 무대를 선사한 미8군 군악대의 공연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특별한 음악적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미국의 인기 있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토니 쿠퍼 하사가 보컬을 맡아 화려한 실력을 뽐내며 공연장의 열기를 더했다.

이어진 프리마돈나 앙상블(단장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은 오페라 곡과 관객에게 익숙한 가곡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찬조출연한 50~60대 예비역 장성과 저명한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민국군가합창단(단장 홍두승 서울대 명예교수)이 우리에게 친숙한 군가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추억과 향수를 선사했다.

미8군 토마스 밴달 사령관은 “오늘 이 공연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가족과 떨어져 연말을 맞는 미군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준 이상균 이사장님과 허요연 총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감 말미에 “한·미 우정은 영원합니다”라고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선보여 자리에 참석한 이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의 친선 도모와 문화예술을 통한 교류에 힘을 계획이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인 프리마돈나 앙상블 공연



한·미 친선 송년 음악회 리셉션에서 건배하는 허요연 총장과 토마스 밴달 사령관을 비롯한 참석자들

군 리더십의 새로운 방향을 찾다 군 리더십 심포지엄

- 군 리더십 교육 현황 점검 및 발전 방향 제시
- 사이버교육을 활용한 군 리더십 교육 시스템 모색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매년 군인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군인에게 특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자 2008년에 국내 대학교로는 최초로 군경상담학과를, 2015년에 군 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 및 리더십 역량 함양을 돕고자 군교육지원처를 설립했다. 군 특화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11월 25일 (금) 군경상담학과와 군교육지원처는 본교 B동 205호에서 인

간적 리더십과 전우 간 팀워크 형성을 위한 ‘군 리더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축하하고자 참석한 허묘연 총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각 군에서 요구하는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군인들에게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노



군 리더십 심포지엄에 참석한 군교육지원처 이정원 처장, 이경식 준장, 허묘연 총장, 최병순 교수, 심용식 장군과 군 관계자들



군 리더십 심포지엄에 앞서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둘러본 참석자들

력하고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이 군 리더십을 제고하는 데 유의미한 시간이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서 군 리더십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살펴보고자 육군리더십센터 교육과장 윤여표 대령의 ‘Flipped Learning을 적용한 군 리더십 집중교육 소개’에 대한 발제와 전(前) 국방대학교 리더십전공 최병순 교수의 ‘사이버를 활용한 군 리더십 개발 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육군리더십센터 교육과장 윤여표 대령은 육군 리더십 교육 시스템을 소개하고, 군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토대로 학생주도 학습방법의 일환인 Flipped Learning의 개념을 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군 리더십 집중교육을 시행하려면 대상별 교육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진행 방법과 군 리더십 집중교육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뒤이어 발제를 진행한 전(前) 국방대학교 리더십전공 최병순 교수는 사이버교육을 이용한 리더십 개발 현황과 활용 방안을 이야기했다. 그는 리더십 역량 개발 기관으로 군의 역할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군 리더십을 인간적인 리더십으로 전환해 끈끈한 전우애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군교육지원처와 군경상담학과의 주도 하에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심포지엄과 특강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군 리더십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는 군 관계자



발제를 경청하는 참석자들



예비 신·편입생에게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입학처장 이완형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입학설명회

-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학사제도 소개
- 1:1 입학 상담으로 궁금증 해소



1:1 입학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신·편입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처는 예비 신·편입생에게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안내하고자 12월 17일 (토) 본교 A동 차이콥스키홀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학생 개인별 학습 속도에 따라 졸업시기와 학습기간을 조절하는 학생맞춤학기제,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선택을 돕는 커리어코칭센터 등 특화된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입학처장 이완형 교수는 예비 신·편입생을 위해 학사제도와 강의시스템에 대해 안내하고, 재학생이 누릴 수 있는 장학제도 등 다양한 혜택도 소개했다. 2017학년도에 새롭게 신설한 특수치료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 정보보호학과 및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안내도 이어졌다. 설명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1:1 맞춤 상담을 통해 학업에 대한 궁금증을 보다 자세히 해결해주는 시간을 마련해 높은 호응도를 얻었다.

시작이 반, 나머지 반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책임집니다! 2017학년도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 온라인 학습방법,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
- 명사특강,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2017학년도 신·편입생들의 대학생활과 학습활동을 지원하고자 2월 4일(토) 본교 A동 차이콥스키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처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학사제도 및 온라인 학습방법 안내, 명사특강,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신·편입생들을 격려하고자 진행한 명사특강은 '우리에게 인생학교가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인생학교 서울캠퍼스 손미나 교장(전 KBS 아나운서)이 맡았다. 신·편입생은 특강을 경청하며 학교생활을 통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나갈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 후에는 신·편입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비보이 생동감크루의 초청공연이 이어졌다. 생동감크루는 Tron Dance(LED 퍼포먼스)에서 '시작이 반 나머지 반은 SCU가 책임집니다'라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슬로건을 표현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환영사에서 허묘연 총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재학생들의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습득과 개인 역량 개발을 위해 기초에서 실무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했다"며 "해외 현지 실습, 특강 및 스터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자랑스러운 서사인으로서 학교의 발전적 미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신·편입생들을 격려했다.



인생학교 서울캠퍼스 손미나 교장의 명사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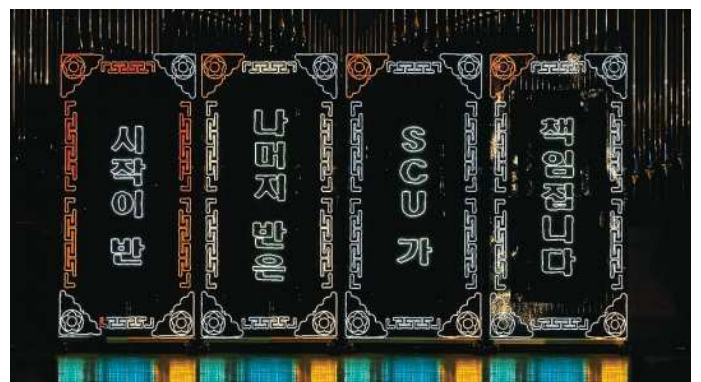
2017학년도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시: 2017. 2. 4 (토) 장소: 차이콥스키홀

주최: 서울사이버대학교
www.scu.ac.kr



비보이 생동감크루의 합창댄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슬로건을 표현한 LED 퍼포먼스



'실전! 면접전략 Skill up' 특강에 참석한 재학생들

학생의 미래 설계를 돕는 '커리어코칭센터' 면접 역량 강화 특강

- 이론과 실전 능력을 쌓을 수 있는 모의면접으로 구성
- 재학생 스스로 면접관이 되어보는 시간 가져

서울사이버대학교 커리어코칭센터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실전! 면접전략 Skill up'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면접에 대한 실전 팁을 안내하고 다대다 방식의 모의면접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시간이었으며, 특강 후 5명의 참가자가 취업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강을 진행하는 이승희 전문 커리어코치

재학생의 취업에 필요한 특강 진행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개설한 커리어코칭센터에서는 커리어 역량개발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2월 15일(목)에는 전문 커리어코치가 진행하는 면접 역량 강화 특강을 진행했다.

면접은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검증 관문인 만큼 직무와 연관 지어 면접자의 개성과 경력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특강은 '실전! 면접전략 Skill up'을 주제로 면접에 대한 이해와 실전 팁, 면접 준비 프로세스, 유형별 전략, 실무진과 임원진 면접별 차이점, 주요 예상 질문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면접전략에 대한 영상 자료를 시청하는 재학생들

모의면접을 통한 자기 점검과 이해

특강 후에는 면접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실전 능력을 쌓을 수 있는 모의면접 시간이 이어졌다. '多대多' 방식의 모의면접을 통해 목소리와 자세 등 시청각적인 요소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여 학생들은 각각 면접관과 지원자가 되어 자신을 어필하거나 상대방을 평가함으로써 다각적으로 면접 역량을 강화했다. 학생들은 각각 전공은 다르지만 서로의 꿈과 포부를 청취하며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도 성실히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 설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서울사이버대학교 커리어코칭센터는 재학생의 제2의 인생 설계와 꿈 실현을 돕기 위해 다양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면접 클리닉 외에도 직업적성검사, 1:1 맞춤형 상담,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구직활동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이 신규 취업, 이직, 전직 및 다양한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2-944-5240)



多대多 방식으로 진행된 모의면접 시간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부와 센트럴 오클라호마대학교가 함께한 중독상담 워크숍



'미국의 약물 중독에 대한 진단과 치료 전략'에 대해 발제한 킬리안 교수

- 중독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
- 워크숍 참석자에게 '중독상담 수료증' 수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미국 센트럴 오클라호마대학교(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킬리안(J. Keith Killian) 교수와 맥퀸(LaDonna McCune) 교수를 초청해 '중독상담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중독 현황을 살피고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센트럴 오클라호마대학교 교수진의 주제 발표를 경청하는 참석자들



국내뿐 아니라 미국의 중독상담 현황에 대해 살펴볼 수 있어 의미를 더한 워크숍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월 7일(토) 본교 A동 국제회의실에서 심리·상담학부 '중독상담 워크숍'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은 센트럴 오클라호마대학교의 킬리안 교수와 맥킨 교수가 발제를 맡아 다양한 사례와 연구를 공유했다. 상담심리학과 김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심리·상담학부장 김현진 교수가 환영사를 건넸다. 이어 심리상담센터장이우경 교수가 “국내의 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진단하고, “중독은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공동의존증’이라는 심리적 질환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사회적 차원에서 확산방지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에는 충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조현섭 교수의 ‘인터넷 중독의 진단과 치료전략’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조현섭 교수는 발제에 앞서 중독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단계별 증상과 원인, 중독상담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이어 센트럴 오클라호마대학교의 킬리안 교수가 ‘미국의 약물 중독에 대한 진단과 치료 전략’에 대해 발제를 진행

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중독을 질병으로 간주하며, 중독과 정신질환은 함께 온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맥킨 교수는 ‘미국의 상습적 도박 진단과 치료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도박중독자는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높다”며 “카지노에 대한 접근성이 좋을수록 도박중독 가능성이 높아지고, 병적 도박 유병률은 성인보다 대학생이 높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참석자 전원에게 중독상담 수료증을 수여해 ‘중독상담 워크숍’의 의미를 더했다.



‘한국의 중독 현황 분석’에 대해 발제한 심리상담센터장 이우경 교수

총동문회의 결속력을 한층 높인 제10회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사인의 밤

- 한 해를 되돌아보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한 시간
- 자랑스러운 서사인상 시상과 다양한 축하공연 마련



총동문회가 개최한 '제10회 서사인의 밤'에 참석한 교수진과 동문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 온 총동문회의 저력을 발휘하고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12월 28일(수) 영등포구 공군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제10회 서사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서사인의 밤에는 허모연 총장과 전광호 학생처장, 정오동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진과 동문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모교 사랑이라는 공통점 아래 함께 즐기고 대화를 나누며 화합을 이뤘다. 1부는 개회 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 인사말씀 및 축하, '제10회 자랑스러운 서사인상' 수여, 축하 케이크 커팅식,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10회 자랑스러운 서사인상 수상자로는 연구부문과 개인부문에서 각각 아동복지전공 정영애 교수와 부동산학과 안광웅 동문이 선정됐다. 허

모연 총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으며, 동문회도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성취한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며 "모든 참석자들이 서사인의 밤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기동대(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동부지역 기타동아리)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가위바위보, 눈치 게임, 제기차기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다. 총동문회 최현정 사무2처장은 전문가 못지않은 레크리에이션 진행으로 화합의 분위기를 북돋웠다. 이밖에도 총동문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사인의 밤이 모두가 하나 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선·후배 간 친목과 우의를 다진 제12회 서울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경영인의 밤

- 경영학과 동문 및 4학년 선배의 '후배사랑 장학기금' 기탁
- 제15대 학과회장 취임 및 제14대 임원에게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



'제12회 경영인의 밤'에 참석한 경영학과 동문들

서울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는 선·후배 간 친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해 1월 7일(토) 강남구 리베라호텔 몽블랑홀에서 '제12회 경영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경영학과 제14대 학생회와 동문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경영학과 교수진을 비롯해 동문, 재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1부 행사에서는 개회 선언, 제14대 학생회 경과보고, 축사 및 격려사 등이 진행됐으며, 이후 '경영학과 후배사랑 장학기금'을 기탁하고 수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송근중 동문회장과 김영순·김옥수·권덕천·민동기·이영섭·조성균 동문 및 13학번 일동(2016학년도 졸업예정자)이 장학기금을 기탁하며 끈끈한 학우애와 후배사랑을 보여줬다. 장학금은 재학생들의 추천에 따라 김주하·하은주·권혁만 학우에게 수여됐다.

이후에는 경영학과 발전과 유대 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동문과 제14대 학생회 임원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하는 등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신·편입생 소개, 케이크 커팅식 및 기념 촬영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신임 학과회장 선출과 학과기 전달식이 있었다. 제14대 학생회 박철진 회장은 이임사를 마치고 새롭게 선출된 김성진 신임 회장에게 학과기를 전달했다. 제15대 학생회 김성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러분의 곁에 머물며 무엇이 필요한지 귀 기울이고, 경영학과가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제12회 경영인의 밤 행사는 3부에서 경영학과 고운승 교수와 전광호 교수의 신년사, 사회자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전광호 교수는 "그간 양적 성장을 이룩해 온 경영학과는 2017년도에는 질적 성장 또한 추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오프라인 활동으로 선·후배 간의 애정을 확인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바른 보건인의 행보를 약속한 제8회 서울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인의 밤

- 보건행정학과 졸업생, 재학생, 신·편입생 80여 명 참석
- 재학생과 신·편입생을 위한 보건 분야 정보 교류



‘제8회 보건행정인의 밤’에 참석한 보건행정학과 교수진과 동문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과학학부 보건행정학과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보건인으로서의 행보를 다짐하고자 1월 14일(토) 종로구 더부페에서 ‘보건행정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8회를 맞은 보건행정인의 밤 행사에는 80여 명의 동문과 문육륜 석좌교수(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보건행정학과장 김미주 교수, 허재현 교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제8대 학생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보건행정학과 교수진과 졸업생, 재학생, 신·편입생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 분야의 정보를 교환했다.

제8대 학생회 김건형 회장의 사회로 개최를 알린 보건행정인의 밤은 ‘만남의 시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됐다. 교수진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한 문육륜 석좌교수는 “보건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인 만큼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하다.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동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 발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히며 보건인의 소양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동문의 시간’에서는 재학생과 신·편입생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담긴 졸업생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질병관리본부에 재직하고 있는 김영화 동문은 졸업 후 구직 가능한 분야와 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하경순 동문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년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봉사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발표를 통해 글로벌 보건인으로 봉사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다방면에 열려 있음을 알렸다.

발표 후에는 게임과 경품 추첨 이벤트로 구성된 ‘친교의 시간’이 이어졌다. 졸업생과 재학생, 신·편입생은 다채롭게 마련된 게임으로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특히 유경훈 학우가 동문들을 위해 마련한 증정품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한 동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김미주 학과장은 “보건행정인의 밤 행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만나던 학우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어 기뻐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동문임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재학생과 신·편입생을 위한 신년 문화행사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관람



뮤지컬 <몬테크리스토>를 관람한 재학생과 신·편입생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월 7일(토)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공연에 재학생과 신·편입생을 초청해 관람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초청된 800여 명의 재학생과 신·편입생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그동안 학우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뮤지컬, 발레, 영화 등 다양한 문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번 <몬테크리스토> 초청 행사는 2017년 새해를 맞아 준비한 자리로 총 1,200여 석의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전석을 예매해 눈길을 끌었다. 덕분에 공연장을 찾은 학우들은 동행한 지인, 동문, 교수진들과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생처장 전광호 교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즐겁게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서 나아가 예비 신·편입생들이 선배와 친목을 다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



로도 정기적인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해 학생들이 교류를 넓혀 갈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복수극의 대명사로 꼽히는 <몬테크리스토>는 프랑스 소설가 알렉상드르 뒤마가 1845년에 발표한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로, 복수와 사랑, 극적인 반전 스토리가 특징이다.

공연 관람을 마친 학우들은 공연의 감동을 주변인들과 나누며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남편과 공연장을 찾았다는 가족상담학과 3학년 임영주 학우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문화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 준 학교에 너무 감사하다”며 “공연 덕분에 SNS 커뮤니티로 소통하던 학우들의 얼굴도 직접 볼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문화·예술을 통한 감성충전의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의 꿈을 응원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전공) 제2회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 대회 시상식

-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자 매년 콩쿠르 개최
- 혁신적인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갖춘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위상 제고



전체 대상 수상자와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이경숙 석좌교수

‘제2회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 대회 시상식’이 12월 17일 (토) 본교 B동 2층 대강의실에서 진행됐다.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는 2015년부터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피아노 전공자를 제외한 예비 음악인들의 꿈을 지원하고자 매년 마련하는 대회다. 이번 시상식은 고등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수상자를 축하하고자 허묘연 총장을 비롯해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이경숙 석좌교수, 나정혜 교수, 신지연 교수, 윤소영 교수, 김신준 교수, 심정은 교수가 참석했다. 허묘연 총장은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이 온라인 학습 위주로 바뀌어 가는 시점에서 국내 최초의 온라인 대학인 서울

사이버대학교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며 “피아노 레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우리 학교가 유일하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 콩쿠르 지원자들의 실력이 상당해 심사위원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에서 전체 대상을 차지한 한하운 수상자는 “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 좋은 연주가가 되어 대한민국 음악계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매해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숨은 인재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제2회 서울사이버대학교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 대회 시상식’에 참석한 허묘연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수상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후원으로 열린 ‘누군가에겐 특별한 이름, 희망’ 공연

-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돕기 위한 특집 공개방송으로 진행
- 홈페이지를 통해 참석자 사전 접수

공연의 사회를 맡은 이정민 아나운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월 20일(금) 본교 A동 차이콥스키홀에서 ‘누군가에겐 특별한 이름, 희망’이라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돕기 공연을 개최했다. ‘음악으로 하나 되고 음악으로 응원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와 공인모(무료인터넷강의카페)가 후원, 평화방송이 주관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최했다. 이날 공연은 남궁옥분, 유익중, 테오, 모던차일드, 캐빈밴드, 하파데이 총 여섯 팀의 뮤지션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노래로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공연에 참여한 가수 테오는 “15년 동안 노래로 봉사활동을 하며 환자들과 가까이에서 생활해왔는데, 환자들은 혼자 영화관이나 야구장에 가고 싶어 하는 등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꿈꾼다”며 “희귀난치성질환은 어느 날 문득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으므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전했다. 한편, 공연을 관람한 김소선 씨는 “삶에 위안이 되는 다채로운 노래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말했다.

누군가에겐 특별한 이름

〈Smile〉을 부르고 있는 캐빈밴드



누군가에겐 특별한 이름

감미로운 노래를 선사한 테오



‘2016 체험, 상담의 현장 속으로’ 프로그램 군상담의 실제 특강

- 실제 사례를 활용한 사례개념화 실습
- 군상담의 특수성 이해와 방향 설정 논의



3군 사령부 김용선 양성평등상담관



군상담의 실제에 대한 특강을 진행 중인 박명희 학술위원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부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군상담의 실제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1월 14일(토) 본교 B동 206호에서 열린 이번 특강은 ‘2016 체험, 상담의 현장 속으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재학생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자로 나선 한국상담학회 군상담분과 박명희 학술위원장은 군상담의 사례개념화를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사례개념화란 내담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가설을 세우고 상담 목표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상담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사례개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강은 참석자의 이해를 돕고자 실제 사례를 가지고 사례개념화 모형을 함께 만드는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습을 통해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호소문제와 촉발요인, 부적응적 패턴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문제유발요인과 유지요인, 상담이론을 파악해 상담계획을 설정하는 실습을 했다.

한편, 특강이 끝난 후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을 졸업한 3군 사령부 김용선 양성평등상담관과 함께 군상담관의 종류와 업무, 준비과정 등에 대해 알아보고 학생들이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현실적인 정보를 공유했다.

재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와의 공동학술연구사업 추진



한수미 교수



박태정 교수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교정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관계자들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심리·상담학부 대상
- 공동세미나 및 특별강의, 학생 단기학술교류사업 진행 예정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7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Stockholm University)와 공동학술연구사업을 추진한다. 2017년도에 실시하게 되는 학술연구사업의 대상학부는 사회복지학부와 심리·상담학부이며, 두 학부 소속 총 9개 학과(전공), 31명의 전임 교수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월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에서 학술연구사업 관련 현지 회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스톡홀름대학교가 그동안 추진해온 학술교류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양교 소속 교수 간 공동연구진 구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양교 간 공동세미나 및 특별강의, 학생 단기학술교류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현지 회의에 참석한 박태정 교수와 한수미 교수는 “스웨덴과의 공동학술연구사업은 재학생과 교수 모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며,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이 사업에 대해 재학생과 동문들의 응원이 이어지길 부탁했다.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가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새롭게 추진하는 스톡홀름대학교와의 공동학술연구사업이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세계로 뻗어가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해 본다.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센트럴 오클라호마대학교 사회·노년·중독학과
킬리안(J. Keith Killian) 교수

한국 방문이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인상을 받았나요?

생각보다 매우 현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곳곳에 스며든 기술 발전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경복궁을 관람했을 때는 한국이 오랜 역사적 유산을 가진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언론에서나 보던 DMZ와 판문점도 방문했는데 이념과 체제가 달라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다는 사실과 가까운 거리임에도 방문할 수 없어 지금도 수많은 이산가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펐습니다.

센트럴 오클라호마대학교 인문대학의 사회·노년·중독학과는 학제적이면서도 여러 학문이 통합된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문대학 학생이 3,000여 명 정도 되는데 우리 학과는 사회, 노년, 중독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중독환자의 70~80%가 트라우마, 불안 등 정신질환을 동시에 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독치료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중독에 대한 통합진료 관련 법이 통과돼 관련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협업하는(co-working)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에 경찰관계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



센트럴 오클라호마대학교 킬리안 교수와 권구순 교수

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인문대학에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
했고 현재 60여 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중독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요?

실은 제가 알코올중독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센트럴 오클라호마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정골의학(Osteopathic Medicine)을 전공하고 켄사스의 리버사이드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주원인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였지만, 아버지 영향도 있었습니다. 제 부친은 성공한 기업가였지만 알코올중독 환자였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중독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 중독이 정신질환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인턴을 마친 후 체로키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면서 자연스럽게 중독 분야 전문가가 됐습니다.

정골의학을 전공하셨는데, 중독 분야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정골의학은 몸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의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중독치료 자체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골의학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학교도 등록금 부담, 수업의 질 보증, 대학교 간 경쟁이라는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0년 후 센트럴 오클라호마대학교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나요?

제가 1986년에 학부를 졸업한 후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대학교는 그 변화를 비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학교도 돈 베허(Don Betz) 총장이 부임한 후 지난 8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규학위 과정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학·석사 통합으로 5년 만에 석사과정을 취득한다거나 2년의 석사과정 중 1년은 실습으로 대체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과정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변혁의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한 소감이 어떠한지요?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한국에서 최고의 사이버대학교라고 들었는데 방문해 보니 왜 그러한 명성을 갖게 됐는지 심분 이해가 되고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우리 학과 석사과정에 아직 한국 학생이 없는데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생이 첫 한국 유학생으로 입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준 높은 강의에 학업 만족도가 상승했습니다

상담심리학과 윤서영 학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13년 동안 고객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상담사부터 시작해 센터장, 운영지원 총괄까지 고객센터 내 모든 업무를 경험했죠. 고객센터에서 일하면서 상담사의 업무 스트레스가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상담사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를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만든 책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담사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저의 첫 작품입니다. 출판은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 부담감도 컸습니다. 완성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보다 쉬웠습니다.

수준 높은 강의와 시간적인 편의성 때문에 학업 만족도가 상승했습니다

책을 낸 후에는 고객센터 관련 강의를 하고자 '윤서영커리어컨설팅'을 설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접한 조직심리가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고, 다양한 논문을 읽다 보니 문득 개인 심리가 궁금해졌습니다. 이후 심리학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세부전공을 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서울사이버대학교로 편입한 것은 박사과정의 세부전공을 선택하기 위한 탐색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수준 높은 강의와 시간적인 편의성 때문에 학업 만족도가 상승했습니다. 강사로 활동하는 저는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편인데,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 강의 시스템 덕분에



윤서영 학우가 집필한 저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 마음의 고요함 감정노동의 지혜>, <영향력있는 BJ 유튜버를 꿈꾼다>는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다니며 배운 배경지식 덕분에 좀 더 견고하게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덕분에 공부에 대한 열의를 불태웁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2학기부터는 부동산학과도 복수전공으로 시작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다양한 강의를 무한대로 선택할 수 있기에 빠듯한 시간과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수준 높은 강의로 탄탄하게 지식을 쌓아 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책 집필 때문에 수업을 집중해서 들을 수 없었어요.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을 때는 틈날 때마다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또 한번 느낀 것이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공부하기 참 편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재우면서도 이어폰을 끼고 편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다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이지영 원우

공부는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직업학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도 배울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에 반해 6년 반을 친정집 같은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 없는 사이버 공부를 신기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즐거운 취미생활이 되었습니다. 다년간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 대상이 공부였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수진이 우수할 뿐 아니라 졸업 후에도 입지가 탄탄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교입니다.

통일 후 북한의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는 정착의 첫걸음부터 일과 학업을 병행했지만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군 생활이 몸에 배어서인지 '나를 지켜야 남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매일 2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자원봉사와 독서 등을 하면서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통일되면 북한의 친구들이 빈손으로 남조선에 가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제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노력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저부터 노력해 투명한 대한민국을 그려갈 것입니다.

교수님들의 정열적인 지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공부하고 싶어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처음 찾았을 때 사회복지학부장 이문숙 교수님을 만났고 환한 미소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온라인 학습 시스템과 학부 등에 대해 알게 됐고 사회복지학부에 입학해서 대학원까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논문을 써야 했지만 이문숙 교수님, 이은주 교수님, 이희연 교수님께서 바쁜 시간을 내어 북한식의 거친 표현 등 미세한 부분까지 점검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서울사이버대학교 강의는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 해당 전공지식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쌓을 수 있었습니다. 우수한 교수진과 최첨단 교육시스템이 있어 대학교와 대학원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는 정치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날 따라 앞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열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면 성공한다'라는 삶의 진리를 체험하길 바랄 뿐입니다. 저에게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이경숙 석좌교수, 러시아 그네신 국립음악원 명예박사 학위 수여

- 음악가와 교육자로 한국을 널리 알린 공로 인정
- 양국 문화·예술의 교류 강화 기대



러시아 그네신 국립음악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러시아 그네신 국립음악원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이경숙 석좌교수와 학교 관계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이경숙 석좌교수가 1월 25일(수)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그네신 국립음악원(The Gnesins Russian Academy of Music)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러문화예술협회가 주최한 이번 학위 수여식에는 이상균 이사장, 서울사이버대학교 허모연 총장과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알렉산드르 티모닌 대사(Alexander A. Timonin), 그네신 음악원 블라디미르 트로프(Vladimir M. Tropp) 피아노 학부장 등 1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경숙 교수는 제5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 최우수상, 제네바 콩쿠르 입상,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협연 등의 우수한 성과를 내며 피아니스트로 활약해왔다.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장,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장을 역임하며 후진 양성에도 힘썼다. 이렇듯 음악가와 교육자로서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

린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적인 음악대학원 그네신 국립음악원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됐다.

이경숙 교수는 “이 순간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느껴진다”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앞으로 더욱 정진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겸손을 잃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경숙 교수는 이어진 솔로 피아노 연주회에서 베토벤의 〈월광〉을 섬세하게 연주하며 참석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 알렉산드르 티모닌 대사는 “이경숙 교수의 그네신 국립음악원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축하한다”며 “이번 학위 수여가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 확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2016 코리아 베스트 의정 대상 & CREATINE KOREA 대상

가족상담학과 **엄정희** 교수 사회공헌인 부문 대상 수상

-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무료 상담소 운영
- 무너져 가는 가정 재건 및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 실시



엄정희 교수가 수상한 사회공헌인 부문 대상 상패



가족상담학과 엄정희 교수(중앙)와 연합가족상담연구소 관계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족상담학과 엄정희 교수는 ‘2016 코리아 베스트 의정 대상 & CREATINE KOREA 대상’에서 사회공헌인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2016 코리아 베스트 의정 대상 & CREATINE KOREA 대상’ 시상식은 대한뉴스신문과 2016 CREATIVE KOREA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며, 한 해 동안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온 선도적인 인물을 선정 및 발굴하고자 매년 진행된다. 올해 시상식은 지난 12월 12일(월) 국회의사당 내 국회 헌정회관에서 거행됐다.

사회공헌인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엄정희 교수는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재능기부로 무료 상담소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연합가족상담연구소는 무너져 가는 가정을 재건하고, 가족 관계 회복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

들기를 목표로 상담을 제공한다.

연구소는 가족상담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청소년 비전학교, 결혼을 설계하는 결혼예비학교, 부부 사이를 돈독하게 하는 부부향해 학교, 황금 노년기를 세우는 은빛 노년학교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개인과 가족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엄정희 교수는 “상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막상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며 “주신 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보듬도록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향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연합가족상담연구소와 파트너십을 체결 재학생에게 실무와 연계한 현장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 토마스 밴달 사령관

“한반도의 평화 위해 헌신할 것” 주한 미8군 토마스 밴달 사령관 특강

- 안보의식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 고취
- 한·미 간 견고한 관계를 통한 한반도 평화 유지 강조



토마스 밴달 사령관 특강에 참석한 허묘연 총장과 관계자들

※ 토마스 밴달 사령관은 1982년 미국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3년 주한미군 제2사단장을 지냈다. 2015년 주한미군사령부 작전참모부장을 거쳐 2016년 2월부터 미8군 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1월 8일(화) 본교 A동 차이콥스키홀에서 주한 미8군 토마스 밴달(Thomas S. Vandal) 사령관을 초청해 한·미 보안 관련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직원, 민주평화통일 이북5도지역회의 관계자와 신일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허묘연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밴달 사령관이 주한 미군 제2보병 사단장으로 있을 때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방문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온라인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이버대학교의 역할에 공감해준 인연이 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속에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밴달 사령관은 “195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기에 북한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철저히 갖춰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미군 장병들에게 한국문화와 한글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미군의 헌신은 계속될 것이고,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인생을 깊게 관찰하라’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 특강

- 무사처럼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 것
-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 파악이 핵심



특강을 진행한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



송길영 부사와 특강에 참석한 허요연 총장 및 학교 관계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학습센터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을 초청해 ‘인생을 깊게 관찰하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12월 6일(화) 본교 A동 차이콥스키홀에서 열린 이번 특강을 통해 송길영 부사장은 어떤 현상과 마주할 때 상상하지 말고 관찰하라고 조언했다.

송길영 부사장은 “무엇을 하든 5년을 투자해야 성공한다”며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먼저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을 해본 후 그 직종이나 일이 빈번하게 검색되면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한, 참석한 교직원에게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어떤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강의를 구성하기 전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은 제2의 인생을 대비하고자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므로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길영 부사장은 수많은 사례를 들어 현실적 이해도를 높였으며, 강의 중간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져 집중도를 끌어올렸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진행해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이명화 아하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성스러운 청소년에게 다가가기' 특강

- 청소년이 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 조성해야
-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성스러운 청소년에게 다가가기' 특강을 진행한 이명화 센터장



특강에 참석한 김윤나 교수를 비롯한 재학생들



열중해서 특강을 듣고 있는 재학생들

청소년의 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 성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서울사이버대학교 청소년복지전공은 10월 15일(토) 본교 B동 205호에서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화 센터장을 초청해 '성스러운 청소년에게 다가가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명화 센터장은 부모는 중학교 이전에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유대감을 쌓아야 하지만 성에 관련해서 직접 알려주기보다는 전문 교육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 성교육은 성폭행 예방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사회적 이

슈에 따라 교육의 초점이 변한다"며 "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교육자는 윤리적·법적 기준에 따라 교육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에 만족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문화 현상을 짚어보고 부모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군경상담학과,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전공

‘청소년지도사 면접 가이드’ 특강

- 실전 면접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시간
- 청소년지도사의 비전과 사명감 제시



‘청소년지도사 면접 가이드’ 특강을 진행하는 오세비 교수와 재학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와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전공은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을 지원하고자 11월 12일(토) ‘청소년지도사 면접 가이드’ 특강을 진행했다. 군경상담학과와 청소년복지전공 재학생들이 참석한 이날 특강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근무하며 청소년지도사 면접관으로 활동한 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세비 교수를 초빙해 면접에 필요한 실전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오세비 교수는 특강을 시작하며 청소년지도사 면접 시 주의사항과 합격의 기준, 면접에 임하는 자세와 지켜야 할 원칙, 면접관들의 평가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면접에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에 대비해 청소년지도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자격제도의 변화 과정과 양성체계, 청소년지도사가 갖춰야 할 전문적인 지식 등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오세비 교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 관련기관과 활동영역을 소개해 학우들이 청소년지도사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강 후에는 학우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과 실전 대비 모의 면접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의 유망 직종으로 전망되는 휴먼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지도사의 비전을 체감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중요 기반이 되는 청소년지도사의 사명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었다.

특강을 수강한 학우들은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졌던 청소년지도사의 길이 이번 특강을 통해 구체화 됐다”며 “실전에 필요한 특강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감탄’

여러가지문제연구소 김정운 소장 특강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단계 소개
-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탄과 유머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주제로 한 여러가지문제연구소 김정운 소장의 특강이 12월 27일(화) 본교 A동 차이콥스키홀에서 열렸다. 김정운 소장은 의사소통은 엄마와의 스킨십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로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했다. “여성은 아기와 소통하기 때문에 손과 입술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말하며, “여성과 달리 한국의 중년남성은 눈을 맞추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킨십이 의사소통의 첫 단계라면 눈을 맞추고 정서를 공유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두 번째 단계이고, 마지막 의사소통은 남의 시선을 따라가

는 것으로 의미를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고 의사소통 단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상대방과 같은 것을 보면 마음의 통로가 열린다며 이 통로를 지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감탄하는 제스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소통에서 유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재치 있고 유쾌한 언변으로 강의 내내 집중과 호응을 끌어올렸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재학생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하고자 김정운 소장뿐만 아니라 유명인사들의 특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동화구연과 화술코칭’

국제한마루교육연구소 김경옥 대표 특강

- 영유아의 언어와 정서 발달에 탁월한 손유희와 동화구연
- 참석 재학생에게 100여 가지 손유희 동작이 담긴 CD 제공

국제한마루교육연구소 김경옥 대표의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동화구연과 손유희’ 특강이 1월 21일(토) 본교 B동 105호에서 아동복지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아동복지전공의 학과 경쟁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이와의 스킨십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법 및 언어와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는 손유희와 동화구연을 주제로 진행됐다. 손유희는 손으로 하는 놀이로 영유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간단한 인사법부터 친밀감을 위한 손유희 등 다양한 동작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특강을 맡은 김경옥 대표는 “손유희는 정확한 동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동작을 맞갈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작과 표정이 일치해야 영유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동화구연 시 아이가 흥미를 잃고 자리를 뜨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더 재미있게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귀로는 듣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어자극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특강 후 100여 가지 손유희 동작이 담긴 CD를 제공해 재학생이 실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동화구연과 손유희’ 특강을 진행한 김경옥 대표



특강을 진행한 김경옥 대표를 비롯한 아동복지전공 교수진 및 재학생들



손유희를 따라하고 있는 재학생들



특강에 참석한 노인복지전공 박기훈 교수와 재학생들

‘장수경제(Longevity Economy)와
글로벌 시니어비즈니스’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제니스 워셀 교수 특강

- 고령화시대에 경제력을 갖춘 노인 수 증가
- 장수경제와 시니어비즈니스에 주목해 새로운 기회 창출



‘새로운 가능성: 장수경제’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제니스 워셀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1월 10일(목) 본교 A동 5층 강의실에서 ‘새로운 가능성: 장수경제(New Potentials: The Longevity Economy)’를 주제로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제니스 워셀(Janice I. Wassel) 교수의 특강을 진행했다.

세계적 노년학 전문가인 워셀 교수는 “경제력을 갖춘 높은 교육수준의 시니어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며 “시니어는 미국 전체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수경제와 실버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장수경제는 건강, 여행, 금

융, 보험, 온라인쇼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융합비즈니스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워셀 교수의 이번 특강은 50+코리안 한주형 회장의 통역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의 상황도 부가적으로 설명해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특강에 참가한 학생들은 실버비즈니스의 전망과 발전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새로운 기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를 가졌다.

개인의 삶과 일에서 행복을 찾는 과정 상담심리대학원 워크숍 ‘코칭심리! 나의 미래를 본다’

- 워크숍을 위해 각 분야 코칭심리 전문가 초청
- 코칭심리 이론의 필요성과 비전에 대해 안내



‘기업에서의 코칭심리’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이은주 대표



‘코칭심리! 나의 미래를 본다’ 워크숍에 참석한 허묘연 총장과 상담심리대학원 교수진 및 대학원 원우들

코칭심리 분야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코칭심리! 나의 미래를 본다’ 워크숍이 12월 3일(토) 본교 B동 205호에서 상담심리대학원 원우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은 외부 코칭심리 전문가를 초청해 코칭심리 이론에 대한 설명과 코칭심리의 필요성, 향후 비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허묘연 총장은 “앞으로 코칭 분야는 확장될 전망인데, 워크숍을 통해 코칭심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파악하는 동시에 많은 정보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워크숍 취지를 소개했다.

이날 워크숍은 더 커뮤니케이션 강지연 대표의 ‘교육 분야에서의 코칭심리’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주) 휴머니타스솔루션 이은

주 대표의 ‘기업에서의 코칭 심리’, 마포 삼성사과나무 정신과 임그린 심리치료사의 ‘상담과 코칭심리’, 광운대학교 탁진국 교수의 ‘코칭심리의 비전과 자격증 취득방안’ 발제로 이어졌다. 광운대학교 탁진국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일반인의 행동변화 촉진과 관련된 새로운 이론 및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며 코칭심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코칭심리! 나의 미래를 본다’ 워크숍을 준비한 상담심리대학원 채정민 주임교수는 “오늘 워크숍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코칭심리 전문가를 모셨다”며 “워크숍을 통해 코칭심리에 대해 흥미를 가졌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글로벌 연수사업 최우수상 수상

- 개발도상국 대상 공적원조(ODA) 사업 일환
- 라오스에 이러닝 전문인력을 육성한 성과 인정받아



글로벌 연수사업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한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연수기관으로서 사업 수행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는 1월 13일(금) 한국국제협력단 본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2017 KOICA 연수기관 간담회'에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글로벌 연수사업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연수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과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기술자,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사업을 실시해 인적 자원 개발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연수기관 중 하나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라오스 원격교육 역량 강화 연수' 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사전조사를 실시해 현지 정부와 교육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커리큘럼을 조정했다. 그 결과 라오스에 수석교사와 IT개발전문가, 영상전문가 등 부문별 이러닝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성과를 얻어 글로벌 연수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권구순 교수는 수상 이후 사업 수행과 성과 등 사례 발표를 하며 이번 연수의 시사점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2017 KOICA 연수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사이버대학에 적합한 수업 개발 연구 SCU Teaching 연구위원회

- 사이버대학에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수업 연구
- ‘좋은 수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 도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학습센터는 2016년 3월 ‘SCU Teaching 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이버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업 개발 방법과 운영 방법을 검토 및 연구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 방법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연구됐던 교수학습 모형이 오프라인 수업에 기초하고 있어 사이버대학교의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할 만한 모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넘어 해당 교육기관의 문화, 정책, 운영, 행정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서울사이버대학교만의 독창적 수업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SCU Teaching 연구위원회는 약 7개월간의 논의와 연구를 거쳐 ‘좋은 수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좋은 수업의 정의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결과물이며, 아울러 수업설계부터 운영까지의 기본적인 수업 개념 틀인 ‘SCU Class Box Model’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SCU Teaching 연구위원회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각 수업별 구체적인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모형을 연구하고 이 모형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 도구의 설계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연구에 박차를 가해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교수학습 모형을 만들 예정이며, 또한 타 사이버대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교수학습 도구 역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SCU Teaching 연구위원회에는 교무처장 정상원 교수, 교수학습센터장 김영민 교수, 교수학습센터 김시원 실장과 김은애 사원, 사회복지전공 권금주 교수,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윤소영 교수, 콘텐츠기획·제작학과 이성태 교수, 상담심리학과 한수미 교수, 보건행정학과 허재현 교수와 외부 전문가 김아론 박사(교육공학)가 참여하고 있다.

SCU CTL 2016-1

좋은 수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SCU Class Box Model | Ver 1.0

2016년 10월
SCU Teaching 연구위원회
교수학습센터



미리보는 SCU Teaching

- SCU Class Box Model 개념
- SCU Class Box Model 수업 활용
- 교수/콘텐츠와 집단 간 교류 슬롯
- 교수/콘텐츠와 개인 간 교류 슬롯



서울사이버대학교 Full HD급 강의 스튜디오



서울사이버대학교 도서관 내부

반드시 행복해지는 5가지 방법

약력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임교수
서울대학교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상담심리학과 김한 교수

심리학의 최신 연구 분야로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 있다. 개인의 행복과 강점, 덕성 증진 등이 긍정심리학의 연구 주제이다.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인 심리학에는 다양한 세부 분야가 있는데, 긍정심리학은 1998년에 미국심리학회장으로 취임한 마틴 셀리그만(Martin E. P. Seligman)이 주창한 이후 공식적으로 확립됐으므로 비교적 최신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이란 말은 매우 매력적이어서 이 분야는 급격히 확장됐고 누구나 관심을 보이게 됐다. 20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긍정심리학은 심리학의 주요 분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긍정심리학에 기반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새로 생겨났다.

긍정심리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밝혀내고 증명한 바에 의하면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루 3가지 감사할 일을 떠올려보기’, ‘오늘 행복했던 일을 적어보기’, ‘운동하기’, ‘명상하기’, ‘타인에게 친절 베풀기’이다. 연구자들은 이런 행동들을 습관화하길 권유하는데 최소 21일간 지속적으로 연습해 습관으로 만들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다.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너무 쉽지 않나? 여기서 언급한 5가지 활동은 익숙하다 못해 상투적이다.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이 ‘반드시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니 거창하게 들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러나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한 것은 반복 연구를 통해 검증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행복에 대한 긍정적인 철학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알면 왜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주장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행복에 대한 긍정적인 철학을 설명하면 이렇다. 흔히 사람들은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성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는 오류가 깔려 있는데 그

것은 ‘행복이 성공 다음에 온다’는 것이다. 행복은 성공 다음에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현재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에너지로 삼아 더욱더 성공할 수도 있다. 즉, 여기서 소개한 5가지 활동은 현재의 행복이 소중하고 그것이 쌓이면 더 큰 행복과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행복이 성공 다음에 온다는 믿음의 오류는 심각할 수 있다. 만일 행복이 성공 다음에 온다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더 큰 성공을 거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하고 현재의 행복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을 받은 학생이 더 행복해지려면 다음에는 95점을 받아야 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장으로 승진한 사람은 더 행복해지려면 다음에는 꼭 상무로 승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90점을 받는 학생이나 부장으로 승진한 사람의 행복은 잠시뿐이고, 이들은 또다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행복을 느낄 틈도 없이 새로운 경쟁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경쟁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 뇌와 정신도 이런 방식으로 형성되고, 습관화돼 있다. 반드시 행복해지는 5가지 방법은 이러한 정신적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행복은 성공 다음에 온다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도록 뇌를 훈련하는 것이다. 5가지 방법을 다 써도 좋고, 마음에 드는 한두 가지만 사용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21일 동안 꾸준히 하는 것이다. 매일 훈련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면 뇌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뇌의 기능이 활성화돼 생산력과 창의력이 향상된다. 그러면 결국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MOU

회계·세무분야 교육 프로그램 도입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월 17일(화) 본교 B동 105호 대강의실에서 회계·세무분야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회계실무(FAT), 세무실무(TAT) 등의 자격증 취득 과정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에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업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직업교육의 질적 향상과 발



허묘연 총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윤승한 상근부회장(좌측 세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

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직원, 회계법인 및 회계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에게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교육 및 장학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전호진 학과장은 “이번 산학협력협약을 통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사의 임직원 여러분께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한국세무사회와 MOU

현장실습과 세무사 초빙 강연 제공



허묘연 총장과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한국세무사회는 1월 18일(수) 한국세무사회 3층 회의실에서 세무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재학생들은 한국세무사회의 세무법인 및 세무사사무소에서 현장실습 기회를 갖고, 세무사 초빙 강연 등으로 효과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교육,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고, 자격시험 고사장을 설치하는 등 운영에 협력하며, 위탁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임직원에게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및 장학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교육이 가능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기존의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한국모형항공협회와 MOU

드론 촬영 및 드론지도사 양성과
편·입학 임직원 장학금 지원



허묘연 총장과 한국모형항공협회 박찬덕 회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2월 19일(월) 본교 B동 206호에서 한국모형항공협회와 모형항공산업 전문인재 양성 및 임직원의 교육 혜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허묘연 총장과 이완형 입학처장, 한국모형항공협회 박찬덕 회장과 이상낙 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상호 발전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콘텐츠기획·제작학과는 '드론 촬영 및 드론지도사' 과목에서 실무과정을 적용해 드론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모형항공협회는 임직원의 편·입학에 있어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식 이후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강의 제작 시스템 등 우수한 인프라를 둘러보며 모형항공 분야 강의 콘텐츠 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국제라이온스협회와 MOU

저개발지역의 직업학교 등
교육봉사를 위한 협약



이은주 신임 총장과 국제라이온스협회 및 학교 관계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월 18일(수) 국제라이온스협회에서 사회봉사를 주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대외적으로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의 평화와 인류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는 사회봉사단체다. 협회에서 진행하는 주요 봉사활동으로는 교육봉사, 환경봉사, 공익봉사, 사회봉사, 보건봉사, 시력보전 및 시각장애

인을 위한 사업 등이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제라이온스협회와 함께 저개발지역의 직업학교 교육지원과 문맹퇴치 사업 등 교육봉사에서 활발한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신임 총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국제라이온스협회를 둘러보며 협회 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SCU NEWS

서울사이버대학교 뉴스

재학생들의 비전 및 진로 설계를 돕는 특강 개최



▲ 특강을 진행한 강지연 대표, 김태선 초빙교수와 참석 재학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2월 10일(토) 심리·상담학부 재학생들이 느끼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본교 B동 205호와 206호에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상담에 대한 이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적용해보는 시간으로 자격증 취득과 재학생 개개인의 비전 및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더 커뮤니케이션 강지연 대표의 '코칭심리 이론 및 실제', 숭실대학교 김태선 초빙교수의 '진로상담 이론 및 실제'라는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됐다.

SCU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특강 개최



▲ 특강을 진행한 손명찬 대표와 참석 재학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1월 12일(토) 본교 A동 502호 강의실에서 2016학년도 2학기 SCU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학생들에게 멘토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함양하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 강연자로 초대된 마음경영 전문기업 공감C&C의 손명찬 대표는 '마음경영 3.0 시대의 멘토와 멘티'라는 주제로 멘티가 가지고 있는 철박함과 삶에서 가장 필요한 자기 욕망, 그리고 그에 따른 멘토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심리·상담학부 특강 개최 및 상담 시연



▲ 특강을 진행 중인 박남숙 소장과 재학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부는 12월 10일(토) 심리·상담학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본교 B동 205호에서 재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 및 상담 시연을 진행했다. 이날 이레심리상담센터 박남숙 소장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과 지지이며 이러한 정서적 연결감은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고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소년상담사 3급 면접 시연 특강 개최



▲ 특강을 진행한 김환·한수미 교수와 참석 재학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는 11월 19일(토) 본교 B동 205호에서 청소년상담사 3급 면접 시연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재학생 및 졸업생을 위한 것으로 심리·상담학부 김환 교수와 한수미 교수의 지도로 진행됐다. 모의 면접은 10여 가지의 면접 기출 문제를 제출해 즉석에서 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시해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 현황



▲ 글로벌자격관리센터 웹사이트

서울사이버대학교 군정상담학과와 청소년복지전공 재학생들이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시험에서 다수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합격자는 청소년복지전공 임희정·강성영·문지현·김미선·구민성·차정아·권혜진·박찬수·손수정·이은주·김해석, 군정상담학과 홍성학·성근표·김민수·전규성·서정도·김미라·김정훈·홍경표·배순옥·유재목·류명숙·이성곤·양세린 학우로 총 24명이다.

웹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 수상



▲ 웹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을 수상한 입학지원센터 웹사이트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웹사이트가 12월 15일(목) 웹어워드 코리아 교육부문 사이버대학교 분야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웹어워드 코리아는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우수 웹사이트 시상식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학과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신·편입생들이 더욱 손쉽게 학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CU WAVE 사회봉사단 시상



▲ 시상식에 참석한 허묘연 총장, 학생처장 전광호 교수와 수상 교직원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SCU WAVE 사회봉사단을 운영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헌신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학교의 위상을 높인 교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하고자 1월 16일(월) 본교 A동 국제회의실에서 감사장과 상금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우수상은 콘텐츠기획·제작학과장 이성태 교수, 우수상은 보건행정학과 허재현 교수와 대학원 교학팀 김현미 주임이 수상했다.

‘러시아 영화제’ 참석



▲ 영화제에 참석한 이상균 이사장과 관계자들

‘2016 러시아 영화의 해’를 맞아 11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3일간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러시아 영화제’가 열렸다. 한러문화예술협회 이사장인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명예이사장, 이상균 이사장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들은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와 함께 영화제의 개막을 축하했다. 영화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러시아 현대 영화를 다수 상영해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위 솔로이스츠 정기연주회



▲ 위 솔로이스츠 단장 윤소영 교수와 학우들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윤소영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실내악 전문연주단체 위 솔로이스츠가 11월 13일(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트홀에서 제14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공연은 슈베르트, 카미유 생상스, 막스 브루흐 등 유명 작곡가들의 명곡 연주로 진행됐으며, 장일범 해설가의 해설을 곁들여 관객이 클래식 음악을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프리마돈나 앙상블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에 마련된 서울사이버대학교 전용 매표소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성악가 70여 명이 모인 프리마돈나 앙상블을 적극 후원하며 매년 정기연주회 개최를 돕고 있다. 12월 2일(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18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 프리마돈나 앙상블은 정통 오페라 아리아부터 청중과 소통할 수 있는 한국 가곡, 크리스마스 캐롤 등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과 소통했다.

서마클, 사랑의 쌀 기부



▲ 장위2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서마클 회원들

서마클(서울사이버대학교 마라톤 클럽 동아리)은 11월 23일(수)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사랑의 쌀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을 통해 20kg 쌀 60포대를 건네 주민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한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표 동아리 서마클은 ‘레이스는 작은 인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회원들과 함께 마라톤으로 체력을 단련하는 동시에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SCU WAVE 사회봉사단, 정기 봉사활동 진행



▲ 다문화가정 가족사진 촬영에 참석한 가족들

서울사이버대학교 SCU WAVE 사회봉사단은 11월 26일(토) 본교 A동 501호에서 다문화가정 20가구에 무료로 가족사진을 촬영해주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강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한 이번 촬영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정기적인 봉사활동 중 하나로, 스튜디오 운영 경험이 있는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졸업생 이남운 동문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한편, 이날 촬영한 가족사진은 액자에 담아 각 가정에 전달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특강



▲ 특강을 진행한 조성은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1월 14일(토) 본교 A동 차이콥스키홀에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핵심 실전 대비 특강을 개최했다. 사회복지학부는 재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도록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반을 운영해왔다. 이번 특강은 마지막 회차로써,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성은 교수가 강사로 나서 이론 강의와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진행했다.

사회복지전공 신·구 임원 대면식



▲ 신·구 임원 대면식에 참석한 사회복지전공 임원진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전공은 1월 14일(토) 본교 B동 8층 구내식당에서 신·구 임원 대면식을 진행했다. 박용준 전임 학생회장과 기한린 신임 학생회장은 악수를 나누고 교수님과 재학생에게 제14대·제15대 임원을 소개했다. 기한린 신임 학생회장은 “제15대 학생회는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복지전공 학생으로서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향후 학생회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시설경영전공 10주년 기념행사



▲ 행사에 참석한 재학생과 동문들

서울사이버대학교 복지시설경영전공은 11월 26일(토) 전공 개설 10주년을 맞이해 서울 충무아트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0주년 기념행사에는 재학생과 동문을 비롯한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에 참석한 한 동문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전국 대학교 최초로 개설한 복지시설경영전공이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자긍심을 내보였다.

교수동정

**고윤승 교수****블록체인기술 관련 논문 발표 및 경력개발 관련 논문 게재**

경영학과 고윤승 교수는 12월 3일 '(사)국제e비즈니스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블록체인기술의 도전과 기회」라는 논문과 12월 9일 '2016년 창의 융합학술대회'에서 「비트코인을 넘어 블록체인-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라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12월 30일 (사)한국전시산업 융합연구원 「한국과학예술포럼」 제26권에 「성인학습자의 프로틴 경력과 무경력 경력의 주관적 경력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권구순 교수****시리아 난민 아동청소년 관련 논문 발표 및 한국의 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관련 논문 게재**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는 12월 9일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 제3차회의 관점에서 본 시리아 난민 아동청소년의 인도적 수요와 지원의 비대칭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12월 30일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6권 제4호에 「한국의 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과 역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새로운 도시의제(NUA) 간 상호연계성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공동(주 저자) 게재했다.

**권금주 교수****노후설계상담사 관련 논문 게재**

노인복지전공 권금주 교수는 12월 31일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제36권 제4호에 「노후설계상담사의 상담교육 참여와 실제 상담경험」이라는 논문을 공동(공동연구자) 게재했다.

**김동환 교수****부동산 관련 논문 발표 및 게재**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는 10월 29일 '(사)한국주거환경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에서 「1인 가구 특성이 주택임지 및 주택시설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12월 31일 (사)대한부동산학회 「대한부동산학회지」 제43호에 「부동산시장개방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경쟁력 제고방안」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 및 부동산직거래 위험성 분석」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같은 날 (사)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제14권 제4호(통권 제34호)에 「1인 가구 특성이 성과변수의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한편 김동환 교수는 성남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선정 교수****서양철학사의 인문학적 관점 관련 논문 게재**

법무행정학과 김선정 교수는 12월 30일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제39호에 「니체의 인문학적 통찰에서 나타난 욕망의 시대에 관한 연구: 협치를 중심으로」라는 논문과 11월 30일 「미래사회」 제7권 제1호에 「인문학적인 관점 전환에 관한 연구: 이성과 감각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김영민 교수****물류교육 서비스품질 관련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12월 31일 한국유통경영학회 「유통경영학회지」 제19권 제6호에 「물류교육 서비스품질이 물류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김요완 교수****화랑도 교육 관련 논문과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적응과정 관련 논문 게재**

가족상담학과 김요완 교수는 12월 30일 한국교육상담학회 「교육치료연구」 제8권 제3호에 「풍류도를 추구하기 위한 화랑도 교육의 정신건강 증진적 요소」라는 논문을, 12월 31일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다문화와 평화」 제10권 제3호에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적응과정 분석: CQR과 근거이론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공동(교신) 게재했다.

**김윤나 교수****Child Friendly Cities in South Korea 관련 논문 발표**

청소년복지전공 김윤나 교수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 'The 4th Asian Forum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Bali 2016 학술대회'에서 「Child Friendly Cities in South Korea」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지연 교수****학생 디지털 게임 이용에 대한 교사 수용도 관련 논문 발표**

상담심리학과 김지연 교수는 11월 19일 「한국게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학교 장면에서 학생의 디지털 게임 이용에 대한 교사의 수용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논문과 「교사의 게임 인식 유형과 학생 게임 이용 수용도의 관계」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지영 교수

성격강점과 행복의 관계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지영 교수는 12월 30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21권 제4호에 「성격강점과 행복의 관계: 초·중·고등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김현아 교수

북한이탈주민 부부 적응과정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현아 교수는 12월 31일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다문화와 평화』 제10권 제3호에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적응과정 분석: CQR과 근거이론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공동 게재했다.



김현진 교수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현진 교수는 11월 30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에 「진로탐색 집단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진로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교신)을 게재했다.



김환 교수

타당화 연구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환 교수는 11월 30일 한국심리학회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제35권 제4호에 "A Validation Study of the Toronto Empathy Questionnaire-Korean Version"이라는 논문을 공동(주 저자) 게재했다.



박종선 교수

빅데이터 기반 적응적 학습시스템 학습자 프로파일 설계 관련 논문 발표

상담심리학과 박종선 교수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 교토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된 '1 CoME 2016 국제학술대회'에서 "A Study about usefulness of training system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local personnel"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교 남부학습센터에서 개최된 '이러닝학회 2016추계학술대회'에서 '빅데이터 기반 적응적 학습시스템 학습자 프로파일 설계'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11월 12일 계명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중앙교육정보원 원격연수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방안 탐색'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교육공학연구』 제32권 제4호에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교수자들의 이러닝 수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인식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박태정 교수

다문화가족 사회서비스 쟁점 분석 관련 논문 게재

복지시설경영전공 박태정 교수는 12월 1일 *The Social Sciences*에 "Issues and Limitations of Social Service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Case of South Korea"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서영수 교수

대기오염 실증연구 관련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서영수 교수는 12월 30일 아시아·유럽 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3권 제4호에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대기오염 실증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심선경 교수

노인복지관 조직문화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전공 심선경 교수는 11월 30일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미래사회복지연구』에 「노인복지관의 조직문화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LMX, TMX의 매개효과 검증」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완형 교수

기업가 정신 관련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이완형 교수는 12월 31일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제14권 제4호에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개념통합에 관한 연구: 16세기 종교개혁 정신 관점에서 재조명」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교수동정

**이우경 교수****한국판 비집착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는 12월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2호에 「한국판 비집착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정원 교수****군상담과 리더십 교육 관련 논문 발표**

군경상담학과 이정원 교수는 12월 10일 '제8회 학술 심포지엄'에서 「군상담과 리더십 교육」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향아 교수****2016 KDC 국제 디자인 초대교류전에 작품 전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사)한국시각디자인협회에서 주최한 '2016 KDC 국제 디자인 초대교류전'에서 〈연화도〉라는 작품을 전시했다.

**임세희 교수****주거빈곤기간에 따른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관련 논문 게재**

아동복지전공 임세희 교수는 12월 30일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제56호에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공동(주 저자) 게재했다.

**임태순 교수****국민 소득 및 기업 공유가치창출 관련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임태순 교수는 12월 31일 한국로고경영학회 『로고경영연구』 제14권 제4호에 「국민 소득의 변화가 행복과 만족의 변화에 미치는 상호영향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성경적 관점에서 고찰한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사)한국전산업융합연구원 『한국과학예술포럼』 제26권에 「학문의 융합을 통한 온라인 교양강좌의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전광호 교수****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태도 관련 논문 게재**

경영학과 전광호 교수는 12월 31일 한국상품학회 『상품학 연구』 제34권 제6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진정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정상원 교수****사회복지사의 맥락적 성과 관련 논문 발표**

복지시설경영전공 정상원 교수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열린 '2016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 원인이 맥락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전문 요원과 민간 사회복지사 비교」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11월 11일 '영성과사회복지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에서 「기독교인의 영성적 나눔교육 경험과 사회복지활동 참여에 대한 함의」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정영애 교수****온라인 교육을 통한 페미니스트 교육 관련 논문 게재**

아동복지전공 정영애 교수는 11월 16일 Routledge Taylor&Francis Group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제22권 제4호에 "A feminist pedagogy through online education"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정현주교수****청소년 팬덤문화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전공 정현주 교수는 11월 30일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청소년시설환경』 제14권 제4호(통권 제50호)에 「청소년 팬덤문화에 관한 연구-문화적 실천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차명희 교수****(사)한국디자인학회 주최 전시회에 작품 전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사)한국디자인학회에서 주최한 전시회에서 〈Monster〉와 〈Bomb〉이라는 작품을 전시했다.



채정민 교수

탈북청소년의 심리학적 연구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채정민 교수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한국심리학회 2016년도 연차대회'에서 「역기능 우울 척도에서 나타난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구성개념 차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11월 30일에는 한국문화 및 사회문제 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에 「탈북청소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주요 쟁점과 연구방향」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12월 10일 '대한군상담학회 제8회 학술심포지엄'에서 「군대 내에서의 다문화상담」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한수미 교수

타당화 연구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한수미 교수는 11월 30일 한국심리학회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제35권 제4호에 "A Validation Study of the Toronto Empathy Questionnaire-Korean Version"이라는 논문을 공동(교신) 게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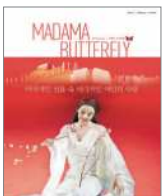
허재현 교수

성인의 신체활동 관련 논문 게재

보건행정학과 허재현 교수는 11월 30일 대한운동학회 『운동학』 제18권 제4호(통권 제56호)에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한 성인의 신체활동 관련 요인 탐색」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SCU 문화 나들이

공연



수지오페라단 2017 오페라 <나비부인>

기간 : 2017. 04. 28(금) ~ 2017. 04. 30(일)

시간 : 금·토요일 오후 7시 30분, 일요일 오후 4시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전 세계 오페라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나비부인>이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펼쳐진다. 새로운 시도의 파격적인 무대와 의상으로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수지오페라단의 완성도 높은 공연을 만나 볼 수 있다.

소식지 <SCU e야기> 우편 발송 관련 수신 동의·거부 안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08년부터 연 4회 <SCU e야기>를 제작·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학교의 발전상과 행사, 동문 소식, 대외협력, 각종 오프라인 모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학생과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신을 원하지 않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수신 동의·거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오른쪽 01~05번까지 이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재학생/졸업생 포털 (portal.iscu.ac.kr) 로그인

02 상단 메뉴 [마이페이지] 개인정보 클릭

03 본문 [학생 신상정보] 하단 [수정] 클릭

04 본문 [<SCU e야기> 우편물 수신 여부]에서 [수신] 혹은 [수신거부] 체크 후 하단 [수정] 클릭

05 완료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2007)

서울사이버대학교

학 부 안 내 : 02-944-5000

www.iscu.ac.kr

대학원안내 : 02-944-5500

grad.iscu.ac.kr

최고 교수진

최첨단 23,000㎡ 캠퍼스



방송국 수준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강의실



차이콥스키홀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2007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서울사이버대학)역 2번 출구**입니다.